

# 第57回 發明教室

## 11月 12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11月 12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57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일원산업기술연구소 元仁浩 소장…○
- …과 전남담양고 朴春基 교감선생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
- …業所有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 發明人을 養成하는 發明

### 全南담양고 朴春基 教 監

發明人을 養成하는 發明人이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69년 「옆에서 쫓는 형광등 소켓」으로 實用新案登錄 第4507號를 획득한 이후 제자들을 發明人으로 養成해 내는데 渾身의 努力을 다해온 全南 담양고 朴春基 教 監.

朴교감이 가르친 제자중 특히 10여명은 이미 우리나라 發明界의 대들보로 손꼽히고 있다. 朴교감은 1件의 實用新案登錄외에는 일체 出願조차 하지 않고 社會에 公開해온 發明教育人으로도 유명하다.

32년째 教育界 외길을 걸어온 朴교감은 그동안 30여건을 發明, 教育界 및 社會에 公開하여 그의 제자들은 물론 社會의 個人發明人 養成에 기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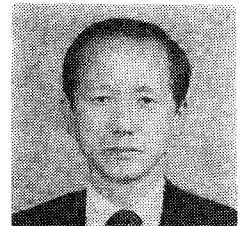
이와 함께 共著인 「發明 特許 創業」을 통해 우리나라 發明人口 확대에 기여하기도 했으며, 「기초 과학교육의 구조 기능 분석」의 다수의 논문은 과학교육의 現代化를 앞당기는데 일조를 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朴교감의 發明 및 科學에 대한 愛着과 努力은 국무총리상·대법원장상·문교부장관상(2회)·과기처장관상(3회)·국민훈장 석류장(1973년)·국민포장(1981년)등 화려한 賞歷이 代辦해 주고 있다.

朴교감은 요즘도 전국 초·중·고·대학생 발명반 教育에 最善을 다하고 있다.

朴교감의 비화는 실로 많다. 그중에서도 자신의 發明品중 첫 作品인 옆에서 쫓는 형광등 소켓을 제외하고는 일체 出願조차 않고 社會에 公開, 發明振興에 앞장서고 있음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朴교감의 첫 發明品은 「유리세공용 버너」. 이 發明品은 出願은 하지 않았으나 그에게 發明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學校를 옮길때마다 제작, 科學教育에 이용되었다. 朴교감은 69년 實用新案登錄을 받은 이후의 發明品인 기체발생관·광섬유를 이용한 현미경 조명장치·물을 보존하는 화분등 30여건의 發明品은 出願하지 않았다.



〈朴春基 教 監〉

『저는 發明人이기 이전에 教育者입니다. 제 제자들이 훌륭한 發明人으로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노라던 教育者라는 職業이 자랑스럽고, 보람을 느낍니다.』

初老의 教育者 朴교감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넓기만 했다.

『훌륭한 發明人을 養成하는데 最善을 다할 것입니다.』

朴교감은 發明科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제자를 보고있노라던 조국의 밝은 내일을 보는 것 같으며, 發明科學界 教育에 앞장설 것을 거듭 다짐했다. <✎>